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창작과 간행

朴 明 眞*

<目 次>

I. 서론	III.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간행
II.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창작 특징	1. 民間 書商의 상업 활동
1. 公案題材에 대한 類型意識	2. 文人의 참여
2. 「話本體 公案小說」의 문체 특징	IV. 결론

I. 서론

中國 白話 公案小說史에서 明代는 소설의 제재 면에서 公案小說의 유형이 형성되고 성숙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明代의 白話 公案小說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包龍圖判百家公案》(약칭 《百家公案》)을 시작으로 《龍圖公案》에 이르는 公案小說 專集으로, 萬曆 시기부터 30여 년에 걸쳐 13부의 公案小說 專集에 속하는 작품집이 간행되었다.¹⁾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明代 후기에 대량으로 창작된 성숙한 형태의 白話 短篇 公案小說로 주로 「三言」, 「二拍」, 《型世言》, 《歡喜冤家》 등 白話 短篇 小說集에 수록되어 있는 공안 이야기를 제재로 한 작품들을

* 영남대 강사

1) 明代 公案小說 專集의 창작과 간행에 관해서는 필자의 줄고 <明代 公案小說 專集의 창작과 간행>(《中國語文學》41, 2003. 6)을 참고할 수 있다.

말한다. 이 두 부류는 창작 방법에 있어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사건의 발생과 발전 및 판관의 사건 해결과 판결을 주요 줄거리로 삼고 있는 작품 즉, 공안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작품들을 가리킨다. 주로 宋·元 시기 「公案類 小說話本」²⁾의 창작 특징을 계승하고 公案小說 專集과 文言 公案小說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내용도 풍부하며 예술성도 뛰어난 작품들이다. 宋·元 公案類 小說話本과 비교하여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작가는 公案小說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유형의식과 창작의도를 드러내었으며, 또한 구성이 긴밀하면서 다채롭고 생동감 있는 공안 이야기를 엮어 내었다. 明代에 창작된 白話 短篇 小說集에는 공안을 제재로 한 작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전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³⁾ 明代 白話 短篇 小說集에 실린 작품 중 明代에 창작된 작품을 기준으로 公案小說의 조건에 부합하는 작품에는 대체로 「三言」 20편⁴⁾, 「二拍」 32편⁵⁾, 《型

- 2) 「公案類 小說話本」은 宋·元 시기에 「說書」예술의 기초 위에 서민들의 생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건과 그에 대한 官府의 판결을 다룬 小說話本을 가리킨다. 현재 宋·元 「公案類 小說話本」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은 대략 12종이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三現身》, 《簡帖和尚》, 《錯斬崔寧》, 《合同文字記》, 《金鰻記》, 《任珪五顆頭》, 《勘靴兒》, 《錯認尸》, 《曹伯明錯勘賊記》, 《陳可常端陽仙化》, 《宿香亭記》, 《鬧樊樓多情周勝仙》.
- 3) 黃巖柏 선생의 《中國公案小說史》(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91)에는 다음과 같은 통계가 있다. 「三言」과 「二拍」에는 모두 43편의 公案小說이 있으며, 26.87%를 차지한다. 《幻影》 30회에는 모두 12편의 公案小說이 있다. 《西湖二集》에는 1편의 公案小說이 있다. 이 외에 일본학자 莊司格一 선생은 《中國の公案小說》(東京: 研文出版, 1998)에서는 「三言」 중 《喻世明言》에 8편, 《警世通言》에 7편, 《醒世恒言》에 17편의 公案小說이 있으며 「二拍」 중 《拍案驚奇》에 14편, 《二刻拍案驚奇》에 18편의 公案小說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宋·元 話本의 이야기들을 함께 포함시킨 것으로 그 수가 비교적 많으며 모두가 明代의 작품이라 볼 수 없는 것들이다.
- 4) 《喻世明言》 2·10·26·31; 《警世通言》 11·15·24·34·35·36; 《醒世恒言》 7·8·15·16·21·27·29·34·36·39
- 5) 《拍案驚奇》 2·6·10·11·13·14·16·17·19·26·27·29·30·33·36·37; 《二刻拍案驚奇》 2·4·5·10·12·13·16·18·20·21·25·28·31·35·36·38

世言》 13편⁶⁾, 《歡喜冤家》 12편⁷⁾, 《西湖二集》 2편⁸⁾ 등이 있다.⁹⁾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창작 특징은 中國 古代 白話 公案小說이 하나의 독립된 유형을 형성하였고 이미 성숙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간행과 창작은 당시의 출판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民間 書商들과 文人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각도를 통해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특징을 토론하고자 한다. 하나는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창작상의 특징이고, 다른 하나는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간행상의 특징이다.

II.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창작 특징

1. 公案題材에 대한 類型意識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작가는 公案題材에 대한 類型意識을 지니고 의식적으로 公案小說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학자 小野四平은 明代 白話 短篇小說 중 判案을 다룬 작품들에 대해 “그것들은 아마도 작가가 명확한 公案小說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쓴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였다.¹⁰⁾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창작은 주로 宋·元 公案類 小說話本の 창작 방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白話 公案小說의 창작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

6) 《型世言》 2·5·6·13·21·22·23·25·27·28·29·33·36

7) 《歡喜冤家》 2·3·4·6·7·8·11·14·15·16·22·24

8) 《西湖二集》 13·33

9) 이 외에도 明代 白話 短篇小說集 《石點頭》 第10卷 〈王孺人離合團魚夢〉과 《清夜鐘》 第3回 〈群賢力夫弱主 良宦術制強權〉와 第7回 〈挺刃終除鴉悍 皇綸特鑒孝衷〉 등도 公案小說 작품으로 볼 수 있다.

10) 小野四平, 〈短篇白話小說中的判案〉, 《中國近代白話短篇小說研究》(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참고.

러나 宋·元 公案類 小說話本은 說書藝術 중 「說公案」에서 분리되어 나와 공안의 색채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작품은 여전히 서민들의 생활상 및 사상과 감정을 묘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안 이야기 자체에 중점을 두고 창작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宋·元 公案類 小說話本은 아직 독립된 公案小說의 유형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이와는 달리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작가는 類型意識을 지니고 서민들의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公案題材를 통해 사회생활의 밑그림을 그려 내었으며, 동시에 교화의 창작의도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분명한 유형의식을 통해 창작된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하나의 독립된 白話小說의 제재유형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한 단계 성숙된 白話 公案小說의 형태를 완성하였다.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 작가의 類型意識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들에 나타난다.

첫째,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작가는 이미 갖추어진 공안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서민들의 사회생활과 그들의 운명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또한 「죄—벌」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공안 이야기의 「선은 선으로 돌아오고 악은 악으로 돌아온다[善有善報, 惡有惡報]」는 결말을 통해 독자를 교화시키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창작 방식은 그들이 이미 公案題材에 주의하였으며 의식적으로 公案小說을 창작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喻世明言》 第26卷 <沈小官一鳥害七命>은 畫眉 한 마리를 도화선으로 7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연쇄성 살인사건을 다루었다. 馮夢龍은 《七修類稿》 卷45 「事物類」 <沈鳥兒>에서 소재를 빌어¹¹⁾ 公案小說에 대한 類型意識을 지니고 사건의 전개와 발전 과정을 풍부하게 개작하였으며, 많은 삽화들을 첨가하여 흥미진진하고 복잡한 공안 이야기를 짜임새 있는 구조로 엮어내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공안 이야기를 因果應報라는 교

11) 譚正璧, 《三言兩拍資料》(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5) 참고.

화의 장치로 풀어가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畫眉 한 마리 때문에 沈秀를 살해한 張公과 부친을 살해하여 재물을 취하려 하였던 黃老狗의 두 아들의 因果應報 외에도, “생계를 돌보는 일에 힘쓰지 않고 풍류만을 즐기 좋아하여 畫眉나 기르며 세월을 보내던 [不務本分生理, 專好風流閑耍, 養畫眉過日] 沈秀도 “평소 가르침에 따르지 않아 오늘날 화를 입어 남에게 살해를 당하게 된[平昔不依教訓, 致有今日禍事, 吃人殺了] 因果應報의 관계가 전 작품을 지배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선을 쌓으면 선을 만나고 악을 쌓으면 악을 만나게 된다[積善逢善, 積惡逢惡]”는 因果應報 사상을 표현하여 강렬한 도덕적 감화를 남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창작의도와 짜임새 있는 공안 이야기의 구조는 公案題材에 대한 성숙한 類型意識을 보여준다.

둘째,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작가는 公案題材와 법률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식하고, 작품 중에 종종 법률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나 법률에 대한 인식들을 표현하였다.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작가는 公案題材에 대한 類型意識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작품 속에서 다양한 법률상식이나 사법에 관계된 내용들을 삽입시켜 법률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독자들에게 법률 지식을 소개하면서 종종 자신의 견해나 감정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醒世恒言》 第15卷 <赫大卿遺恨鴛鴦條>의 작가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법률지식을 소개하여, “대체로 관아에는 동쪽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나오는 법도가 있다[大凡衙門, 有個東進西出的規矩]”¹²⁾라고 하였다. 《二刻拍案驚奇》 卷之31 <行孝子到底不簡尸 殉節婦留待雙出柩>에서도 법률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률 항목을 조사해 보면, 주인이 고용한 일꾼을 때려 죽였을 시 단지 매장을 해주고 徒刑으로 그 죄를 속죄하면 될 뿐 결코 배상에 대한 조항은 없다[將律例一查, 家長毆死雇工人只斷得埋葬, 問得徒贖, 并無抵償之條]”¹³⁾라고 하였다.

12) 馮夢龍, 같은 책, 316쪽.

13) 凌濛初, 같은 책, 567쪽.

또한 작가들은 법률 조항에 대한 법률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종종 법률에 대한 인식들을 드러내 보였다. 예로 《二刻拍案驚奇》卷之31 <行孝子到底不簡尸 殉節婦留待雙出柩>는 王世名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부친의 복수를 위해 王俊을 살해하고 官府에 자수를 하였는데, 官府에서 그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부친의 시체를 부검하려 하자, 관가 公堂에서 자살을 하여 부친의 시체를 온전하게 한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이 작품은 봉건시대 윤리의식과 법률 사이의 모순을 그렸으며, 작가가 법률과 봉건 윤리도덕 사이에서 평형을 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법률의 공정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王世名の 범죄에 대해 “이치를 따지자면 죽음으로 살인을 배상하여야 한다[論來也是一命抵一命]”¹⁴⁾고 하였다. 그렇지만 또한 봉건 윤리의식을 우선에 두기 때문에 陳大尹의 입을 빌어 “그대가 효자의 도리를 행한 것은 성문법으로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없으며[君行孝子之事, 不可以文法相拘], “효의는 존경할 만한 것이므로 마땅히 가벼운 처벌에 따라야 한다[說孝義可敬, 宜從經典]”¹⁵⁾라고 판결을 내렸다. 《型世言》第2回 <千金不易父讐 一死曲伸國法> 역시 이것과 같은 소재의 작품을 다루고 있는데, 주인공은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죽으려다 간신히 살아나지만 결국은 절식하여 죽음을 선택하였다. 작가는 법률과 봉건 도덕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인공이 자살하는 내용으로 결말을 처리하였다. 그렇지만 작가는 王世名の 죽음을 애도하며 “효자는 반드시 살아야 하며 살면 반드시 나라에 공헌할 수 있다[孝子必生, 生必有効于國]”고 강조하여 봉건사회의 윤리도덕 의식이 법률에 앞설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기에서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 작가의 법률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은 公案小說이 현실 법률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작품 속에서 작가는 여전히 봉건도덕의 기준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못하였다.

14) 凌蒙初, 같은 책, 572쪽.

15) 앞의 책, 572쪽.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宋·元 公案類 小說話本의 기초 위에서 한층 더 발전시켜 公案小說에 대한 선명한 題材意識을 지니게 되었고, 公案 題材를 통해 폭넓고 다채로운 사회생활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明代 白話 公案小說이 題材 면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유형을 형성하고 성숙된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話本體 公案小說」의 문체 특징

明代 白話 公案小說은 문체의 특징에 따라 크게 다음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書判體 公案小說」로 法律類書의 문체를 모방해 이야기를 서술하는 가운데 三詞(狀詞, 訴詞, 判詞) 등의 司法文書를 삽입하는 公案小說이다. 明代 公案小說專集 중 《廉明公案》, 《諸司公案》, 《詳刑公案》, 《海剛峰公案》과 《法林灼見》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話本體 公案小說」로 小說話本의 형식을 모방해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公案小說이다. 바로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混合體 公案小說」로 書判體 公案小說과 話本體 公案小說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公案小說이며, 달리 「中間體 公案小說」이라 부를 수 있다. 《百家公案》과 《龍圖公案》이 여기에 속하며, 두 작품은 話本體 公案小說의 문체를 모방해 이야기를 서술하며, 書判體 公案小說처럼 이야기 중간에 간간히 狀詞, 訴詞, 判詞 등의 司法文書를 삽입하기도 하였다.¹⁶⁾

「話本體 公案小說」에 속하는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문체 특징은 크게 다음의 몇 가지 창작특징을 통해 드러난다.

첫째,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기본적으로 宋·元 小說話本의 창작

16) 孟犁野선생은 《中國公案小說藝術發展史》(北京: 警官教育出版社, 1996)에서, 장르의 각도에 따라 公案小說의 문체 및 그 특징을 언급했는데, 明代 公案小說을 크게 다음의 세 종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文言筆記體」; 둘째, 《海剛峰公案》을 대표로 하는 「書判體」; 셋째, 「三言」 중의 公案小說을 대표로 하는 「話本體」. 그 외에 《百家公案》과 《龍圖公案》을 話本體를 위주로 하는 「混合體」로 보았다.

방식을 계승하여 話本體의 문체를 통해 공안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開場詩」는 正文의 이야기 내용을 개괄하고 공안소설의 유형의식과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 《喻世明言》 第26卷 <沈小官一鳥害七命>의 「開場詩」를 보면, “날짐승이 화근을 일으켜 일곱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잔혹한 일은 한탄스럽구나[飛禽惹起禍根芽, 七命相殘事可嗟]”¹⁷⁾라고 하여, 이야기의 핵심을 간략하게 개괄하여 새 한 마리가 일곱 명의 목숨을 해치게 되는 살인사건임을 제시하고, 작가가 이 공안 이야기를 빌어 독자들을 교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또한 散場詩를 통해 공안 이야기를 최종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려 자신의 관점을 전개하고 한편 교화의 창작의도를 강조하였다. 《拍案驚奇》 卷之17 <西山觀設錄度亡魂 開封府備棺追活命>은 결말부분에서 正文의 공안 이야기에 대한 의의를 평가하며 “이 이야기는 대체로 道家人들이 반드시 크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這本話文, 凡是道流該猛省]”¹⁸⁾라고 하였다. 작가는 또한 黃妙修의 시를 散場詩로 빌어서 중요인물들의 언행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공안 사건을 둘러싼 선악을 명확히 가려내었다. 吳氏의 음탕함이 아들을 해치게 된 행위를 비판하여, “허리에 검이 들어온들 어찌 함부로 말하겠는가, 욕정을 탐하여 아들을 죽였다[腰間仗劍豈虛詞, 貪着奸淫欲殺兒]”¹⁹⁾라고 하였으며, 劉達生의 효심을 칭찬하여 “법당에서 감히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비로소 고아가 큰 효자임을 믿을 수 있다[當堂不肯分明說, 始信孤兒大孝人]”²⁰⁾라고 하였다. 또한 마지막에 淸官의 明察을 칭송하여 “황태운은 가장 신명하여 불효한 자에게는 죽음을 내려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 기어코 간통사건을 심문하여 판결을 뒤집었으며 결코 고문을 남용하는 일이 없었다[黃堂太尹最神明, 忤逆加誅法不輕. 偏爲鞠奸成反案, 從前不是浪施刑]”²¹⁾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拍案驚奇》 卷之2 <姚滴珠避羞若羞 鄭月

17) 馮夢龍, 《喻世明言》(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4), 417쪽 인용.

18) 凌濛初, 같은 책, 305쪽 인용.

19) 앞의 책, 305쪽 인용.

20) 앞의 책, 305쪽 인용.

娥將錯就錯>의 頭回 이야기는 이름을 도용한 사기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어느 무술인 할머니가 柔福公主의 이름을 도용하여 궁궐 안의 사람들을 속이고 부귀를 누리다가 결국 진상이 밝혀지면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 頭回 이야기는 유사한 유형의 공안 이야기를 통해 “용모가 너무 비슷하여 간교하고 희귀한 송사를 벌이게 된[一個容貌廝像, 弄出好些奸巧希奇的一場官司]”²¹⁾ 正文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작용을 하였다.

둘째,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小說話本의 문체를 모방하여 話本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한편, 다른 話本體 소설들과는 구별이 되는 公案題材의 특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書判體 公案小說의 문체형식을 흡수하고 있는 話本體 公案小說의 문체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품들은 종종 司法文書를 공안 이야기 가운데 삽입하였다. 예를 들어 《二刻拍案驚奇》 卷之4 <青樓市探人踪 紅花場假鬼鬧>에서는 張廩生의 두 아들이 부친이 살해된 사실을 알고 官府에 소장을 제시하였는데, 작품은 소장의 형식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拍案驚奇》 卷之10 <韓秀才乘亂聘嬌妻 吳太守憐才主姻簿>에서는 혼인과 관련된 民事訴訟을 쓰고 있는데, 韓秀才와 金朝奉이 맺은 혼인서약서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醒世恒言》 第7卷 <錢秀才錯占鳳凰儔>와 《醒世恒言》 第8卷 <喬太守亂點鴛鴦譜> 및 《二刻拍案驚奇》 卷之35 <錯調情賈母罵女 誤告狀孫郎得妻> 등에서는 관관의 판결문을 삽입하였다. 「三言」, 「二拍」 중의 공안 작품들이 쓰고 있는 판결문은 주로 駢儷體의 문장이다. 그렇지만 書判體 公案小說과 비교할 때 이러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계가 있고 작품들은 주로 사법문서를 이야기 속에 조화롭게 서술하여 이미 법률유서를 모방한 書判體 公案小說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소설의 서술에 있어 더욱 자연스럽고 성숙된 문체를 보여준다.

이러한 話本體 公案小說의 문체 특징은 公案小說의 또 하나의 독특한 문체형식을 형성하여, 공안 이야기의 의의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 그러므

21) 앞의 책, 305쪽 인용.

22) 앞의 책, 29쪽 인용.

로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한층 더 성숙된 白話 公案小說의 면모를 보여주며 더욱 풍부한 예술적 효과를 낳았다. 이렇게 문체 면에서 「話本體 公案小說」로 구별되는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창작특징과 예술적 효과는 주로 다음의 몇 가지 방면에 나타난다.

첫째, 話本體 公案小說의 특징을 운용하여 변화가 많고 생동감이 넘치는 공안 이야기를 엮어 내었다.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宋·元 公案類 小說話本の 창작 방법을 계승하고 이를 한층 더 발전시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변화가 풍부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는 공안 줄거리를 전개하였다. 특히 사건의 발전과 심리과정 및 판결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 중 어떤 작품들은 그 소재가 明代 公案小說專集의 것과 중복되거나 유사하다. 그렇지만 話本體 公案小說은 書判體 公案小說 혹은 混合體 公案小說과 비교하여 극적 요소가 더욱 강하며 그 세부 묘사에는 생동감이 넘친다. 소재가 중복되는 작품의 목록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陳御史巧勘金釵鈿>(《諭世明言》); <陳按院賣布賺贓>(《廉明公案》)
2. <滕大尹鬼斷家私>(《諭世明言》); <滕同知斷庶子金>(《廉明公案》)
3. <玉堂春落難逢夫>(《警世通言》); <妒妾成獄>(《海剛峰公案》)
4. <況太守斷死孩兒>(《警世通言》); <顏尹判謀陷寡婦>(《諸司公案》)
5. <陸五漢硬留合色鞋>(《醒世恒言》); <奸婦殺客人>, <楊繼儒釋冤>(《海剛峰公案》)
6. <汪大尹火焚寶蓮寺>(《醒世恒言》); <汪縣令燒毀淫寺>(《廉明公案》)
7. <西山觀設錄度亡魂……>(《拍案驚奇》); <李府尹遺砧奸婦>(《明鏡公案》)
8. <奪風情村婦損軀……>(《拍案驚奇》)²³⁾; <僧徒奸婦>(《海剛峰公案》)
9. <顧阿秀喜舍檀那物……>(《拍案驚奇》); <鄭太府斷舟人劫財殺命>(《律條公案》)

23) 《歡喜冤家》第11回 <蔡玉奴避雨撞淫僧> 역시 동일한 소재로 만든 작품이다.

10. <通閨闈監心燈火…>(《拍案驚奇》); <續姻緣而盟舊約>(《百家公案》)
11. <張員外義舉與哈子…>(《拍案驚奇》); <韓推府判業歸男>(《廉明公案》)
12. <東廊僧怠招魔…>(《拍案驚奇》); <判孫寬謀殺董妻>(《百家公案》)
13. <淫婦背夫遭誅…>(《型世言》)²⁴⁾; <胡憲司寬有義卜>(《諸司公案》)
14. <香菜根喬裝奸命婦>(《歡喜冤家》); <洪大巡究淹死侍婢>(《廉明公案》)
15. <陳之美巧計騙多嬌>(《歡喜冤家》); <義婦爲前夫報讎>(《百家公案》)²⁵⁾

이들 작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서로 같은 소재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단지 소재만 유사하다. 어떤 작품들은 비록 직접적인 源流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비교하여 분석하면 話本體 公案小說과 다른 文體의 公案小說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警世通言》第24卷 <玉堂春落難逢夫>는 《情史》卷2 <玉堂春>을 개작하여 쓴 것이다.²⁶⁾ 이 작품은 王景隆과 기녀 玉堂春의 사랑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王景隆은 재산을 탕진한 후 玉堂春의 도움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후 妓院의 亡八과 鴉母가 玉堂春을 沈洪에게 몰래 팔아 넘겼다. 沈洪의 아내 皮氏는 이웃의 監生 趙昂과 간통을 하였는데, 남편이 玉堂春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정부와 상의하여 남편을 독살하고 그 죄를 모두 玉堂春에게 뒤집어 씌웠다. 趙昂이 王知縣에게 뇌물을 써서 玉堂春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 후에 王景隆이 山西 巡按이 되었으며 劉推官이 玉堂春의 누명을 벗겨 주었고, 玉堂春과 王景隆의 재회하는 장면으로 결말을 맺었다. 《海剛峰公案》第29回 公案 <妒妾成獄>도 이 소재를 서술하였는데, 비교적 간략하고 구성도 긴밀하지 못하다. 비록 내용은 비슷하지만 앞의 작품과 源流관계의 작품으로 볼 수 없다. 두 작품의 서사 중점을 비교해 볼 때, 《海剛峰公案》에서는 정실이 첩을 투기하는 내용이 더욱 강조되었고, 이야기도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警世通言》의 이야기는 간통을 하고 남편을 살해한 내용을 부각시켰으며 세부 묘사가

24) 《歡喜冤家》第8回 <鐵念三激怒誅淫婦> 역시 동일한 소재로 만든 작품이다.

25) 《杜騙新書》「婚娶騙」<因蛙露出謀娶情> 역시 동일한 소재로 만든 작품이다.

26) 譚正璧, 같은 책 참고.

매우 풍부하여, 이야기가 변화가 많고 생동감이 넘친다.

이와 같이 話本體 公案小說은 다른 문체의 白話 公案小說에 비해 짜임새 있는 구조와 흥미로운 이야기의 전개로 독자들을 흡입하는 힘을 가진다.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 중에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다. 그 예로 《二刻拍案驚奇》 卷之38 <兩錯認莫大姐私奔再成交楊二郎正本>은 莫大姐의 私通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부녀자 인신매매 사건을 다룬 공안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이 작품은 莫大姐가 이웃의 楊二郎과 서로 私通을 하고 있었는데 취중에 그만 郁盛을 楊二郎로 잘못 알고 그와 奸通을 하게 되어 함께 달아나기로 하였다. 郁盛은 莫大姐를 속여 그녀를 妓院에 팔아 넘겼다. 莫大姐는 요행이 도움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 남편에게 버림 받고 楊二郎과 결합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莫大姐의 奸通—郁盛의 부녀자 인신매매 사건—莫大姐의 고초—楊二郎의 억울한 옥살이—莫大姐의 귀향—莫大姐와 楊二郎의 결합으로 이어지는 변화 있고 긴밀한 구조를 전개하였다.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흥미롭게 전개되며 변화를 추구하는 스토리 전개는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작가는 이러한 변화무쌍한 사건의 전개에 대해 “이것 또한 莫大姐가 아녀자 된 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받게 된 因果應報이다[此亦是莫大姐做婦女不學好應受的果報]²⁷⁾”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렇지만 작가는 莫大姐에 대해 한편으로 동정의 태도를 보였다. 남편이 城樓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녀는 결혼생활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楊二郎과 감정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결국 莫—楊 두 사람을 결합시키는 결말을 설정하였다. 또 다른 예로 《歡喜冤家》 第3回 <李月仙割愛救親夫> 등의 작품 역시 매우 변화무쌍하고 생동감 있는 공안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이 두 작품은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話本體 公案小說의 창작 특징을 매우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7) 凌蒙初, 같은 책, 686쪽.

둘째,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話本體 公案小說의 문체 특징을 심분 발휘하여, 변화 있고 생동감 넘치는 공안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인물의 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해 내었다. 특히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서사는 사건의 발생과 전개 및 그와 관련된 인물의 운명에 관한 묘사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다른 白話 公案小說에 비해 사건 속 주인공의 사회생활과 공안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사상과 감정 등을 묘사함으로써 매우 인상적인 인물형상을 묘사해 내었다.

《醒世恒言》 第27卷 <李玉英獄中訟冤>은 주로 계모의 학대와 전처 자식들의 고초를 배경으로 발생한 공안 이야기를 묘사한 작품이다. 通俗類書 《國色天香》에李玉英과 관련된 기록이 있으며, 주로李玉英의 상소문을 기록하였다. 《醒世恒言》에도 이것과 유사한 상소문이 있지만, 작가는 흥미로운 공안 이야기에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약한 세력에 저항하는 강인한李玉英의 형상을 중점적으로 묘사하였다.李玉英은 계모의 모함에 의해 「剛刑」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옥중에서 「辨冤奏本」를 써서, 마침내 「寬恤之典」의 기회를 맞아 진상이 폭로되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석방이 되었다. 결말 부분에 《列女傳》의 칭송을 통해 그녀가 「辨冤奏本」을 통해 억울함을 풀게 된 의지와 재능을 칭송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인물형상은 宋·元 公案類 小說話本の 인물들과 비교해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음을 볼 수 있다. 또 《拍案驚奇》 卷之19 <李公佐巧解夢中言 謝小娥智擒船上盜>는 복 잡하면서도 감동적인 공안 이야기를 통해 “한 뛰어나고 기이한 여인으로 진실로 천고에 듣기 드문[一個絕奇女人, 眞是千古罕聞], 용감하고 민첩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俠女의 형상을 묘사하였다.

이 외에 《型世言》 第5回 <淫婦背夫遭誅 俠士蒙恩得有>는 耿植과 鄧氏가 간통을 하다가 耿植이 鄧氏의 불의를 보고 그녀를 살해하였고 聖恩을 입어 죽음을 면하게 된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諸司公案》 「人命類」 <胡憲司寬宥義卜> 역시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그렇지만 《型世言》의 이야기에 비해 매우 줄거리가 간결하고 인물형상의 묘사도

선명하지 못하다. 《醒世言》의 작품은 이것과 비교해 인물형상의 묘사가 매우 성숙되어 있다. 이 작품은 인물들의 대화와 삽화 및 심리 묘사 등을 통해 매우 선명한 인물형상을 만들어 내었다. 작품은 형장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무고한 老白이 사형을 받게 되는 광경을 보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수를 하게 되는 耿植의 강직한 성격을 묘사하였다. 또한 작가는 서두에서 몇 개의 세부 묘사를 통해 이미 耿植의 의리 있고 강직한 성격을 부각시켰다.

셋째,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희극성과 풍자성의 예술기법을 통해 독특한 예술적 풍격을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이 표현수법에서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黃巖柏 선생은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예정혼인 사건을 둘러싼 희극이 출현하였다고 하였다.²⁸⁾ 이것은 매우 정확하고 탁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전 宋·元 公案類 小說話本の 「私情公案」²⁹⁾ 작품을 한 단계 발전시킨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私情公案 작품은 이전의 창작특징을 계승하여 더욱 참신하고 발전된 私情公案의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희극성과 풍자성의 필법이 새로이 첨가되어 독특한 예술 경지를 이루어 내었다. 여기에서 白話 公案小說의 창작이 예술표현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 걸음 더 진보하고 발전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醒世恒言》 第7卷 <錢秀才錯占鳳凰儔>와 《醒世恒言》 第3卷 <喬太守亂點鴛鴦譜>은 이러한 작품의 대표적인 예로 사건 판결의 과정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를 만들어 내었다. <錢秀才錯占鳳凰儔>는 혼인을 題

28) 黃巖柏, 같은 책, 168쪽 참고

29) 「私情公案」은 『醉翁談錄』 甲集 卷2 「私情公案」의 작품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예정행각과 혼인을 서술하는 가운데 사건의 발생과 被告의 訴狀과 官府의 判決文 등이 삽입되어 있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모식은 明代 白話 公案小說의 창작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私情公案은 후대 明代 白話 公案小說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宋·元 話本 중 「宿香亭張浩遇鴛鴦」와 「鬧樊樓多情周勝仙」 등 작품은 남녀 간의 예정과 이로 인한 官府의 판결을 다뤘다는 점에서 『醉翁談錄』의 「私情公案」을 계승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材로 하여 처음에는 거짓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 진짜가 되어버린 희극적인 공안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淸官인 錢秀才는 錢靑과 秋芳의 인연을 하늘이 점지한 것이라 여기고 유머감각을 발휘해 “멋진 남자는 멋진 여인을 배필로 삼아야 두 사람 모두가 공평하며, 아내를 구하려 했으나 아내가 없는 것은 자신이 만든 업이니라[佳男配了佳婦, 兩得其宜; 求妻到底無妻, 自作之孽]”³⁰⁾라고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에 顏俊에게 錢靑의 혼인 자금을 돕게 함으로써 계락을 꾸며 남을 속인 악행을 처벌하였는데, 풍부한 재치와 유머감각이 배어 나와 희극적 색채를 돋보이게 하였다. <喬太守亂點鴛鴦譜> 역시 혼인을 題材로 한 희극성이 매우 풍부한 공안 이야기이다. 喬太守는 매우 복잡하게 얽힌 관계에 대해 유머감각이 돋보이는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내렸다. “서로 좋아하여 혼인을 함에 있어 예는 의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후하게 치러야 할 혼인을 간단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은 임시방편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相悅爲婚, 禮以義起 所厚者薄, 事可權宜]”라는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친척끼리 서로 집안을 바꾸어 결혼을 하였으니 오백년 이후에도 결코 잘못된 혼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親是交門, 五百年決非錯配]”³¹⁾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市井 백성의 가치관과 선악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우 독특한 심미관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유머와 해학이 담긴 판결을 서술하여 희극적 색채가 풍부한 예술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白話 公案小說의 예술적 풍격을 새롭게 하였다.

또한 예술 풍격의 특징에 있어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陰府의 판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독특한 풍자 기법을 통해 현실 官府의 어두움과 부패를 폭로하고 이를 통해 풍자예술의 풍격을 만들어 내었다. 이 작품들은 公明正大한 사법에 대한 이상과 희망을 公正하고 淸廉한 陰府에 의탁하였다. 이것 자체가 이미 현실에 대한 신랄한 풍자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二刻拍案驚奇》 卷之16 <遲取券毛烈賴原錢 失還魂牙僧索剩命>은

30) 馮夢龍, 같은 책, 159쪽.

31) 앞의 책, 184쪽.

역시 陰府의 판결을 서술하였다. 작가는 현실세계 官府는 매우 부패해 있지만 陰府에도 官府가 있어서 “현실세계에서 해명을 하지 못한 억울한 사건들은 결국에는 陰府에서 깨끗이 끝내게 된다[世間沒分割處的冤枉 盡拚到陰司里理直]”, “사실 陰府의 因果應報는 추호의 틀림도 없다[其實陰司報應, 一毫不差的]”³²⁾고 생각하였다. 이 작품은 陳祈가 재산을 은닉하여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전답을 毛烈에게 맡기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高公이 증인이 되었었다. 그러나 나중에 毛烈이 이 일을 발뺌하자 陳祈는 東嶽宮神에게 빌고 그를 陰府에 고발하였다. 신기하게도 陰府에서 陳祈, 毛烈, 高公 세 사람을 불러다가 심문하여 公平無私하게 판결을 내렸다. 毛烈은 지옥에서 벌을 받고 陳祈는 현실세계로 돌아와 毛烈의 아내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깨닫게 해 주었다. 이 작품은 陰府의 公平無私한 판결을 통해 이와는 대조되는 현실세계의 官府를 풍자하고 있다. 陰府의 明鏡으로 현실세계의 일거수일투족을 비추니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陰府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陰府는 진실로 사사로움이 없는 곳이니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으니, 이승의 官府의 명료하지 못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陰間真個無私, 一些也瞞不得. 大不似陽間官府, 沒清頭, 沒天理]”³³⁾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현실의 官府가 극도로 부패하여 정의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을 陰府의 심판과 應報에 기탁하였다. 작가는 고대인의 이러한 사유방식을 이용하여 공명정대하고 公平無私한 陰府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독자들을 교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또한 현실 官府를 비판하는 寓言을 통한 풍자기법은 강렬한 풍자예술의 극치를 이루어 내었고, 白話 公案小說의 작품성을 한 단계 제고하였다

결론적으로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문체 면에서 話本體 公案小說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즉, 변화가 많고 복잡한 공안 이야기를 짜임새 있는 구조를 통해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였으며, 또한 사건 발생과 진행

32) 凌濛初, 같은 책, 308-309쪽.

33) 앞의 책, 319쪽.

의 과정과 이로 인한 인물의 운명을 섬세하게 다룬 공안 이야기를 통해 선명한 인물 형상을 묘사해 내었다. 또한 이러한 문체 특징을 통해 다양한 예술기법을 운용하여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 내었다. 이로써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白話 公案小說史에서 독창적이고 성숙한 公案小說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유형을 형성하였다.

Ⅲ.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간행

1. 民間 書商의 상업 활동

明代 후기 출판업의 번영과 인쇄기술의 발달에 따라 민간 출판업계는 계속적으로 여러 종류의 白話 短篇小說集을 출판하였으며, 주로 世情의 千態萬象에 대해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明代 후기 白話 短篇小說의 성행과 그 전과 능력은 도시 오락문화의 장인이라 할 수 있는 민간 說書人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宋代 이후 성행한 說書藝術은 明代에 이르러 說書 이야기가 서면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출판과 상업 활동을 이끄는 민간 書坊의 書坊主가 상당한 추진력과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그들은 당시 통속소설을 중시 하던 문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明代 白話 短篇小說集의 간행은 주로 天啓, 崇禎 연간에 이루어졌다. 《古今小說》(《喻世明言》)을 시작으로 白話 短篇小說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白話小說이 생겨났는데, 《古今小說》의 <識語>에 의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한 가지 일을 쓰고 있어 얘기하고 즐기기에 충분한 것[其有一人一事足資談笑者]”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형식은 公案題材를 다루기에도 편리하여 상당수의 公案小說이 수록되었다.

당시 간행 상황을 살펴보면 「三言」은 주로 天啓 연간에 간행되었으며 간행 지역은 杭州와 蘇州에 편중되어 있었다. 天啓 연간에 吳縣 天許齋는

《全像古今小說》(40卷)을 간행하였고, 吳縣 衍慶堂에서 天啓 연간에 그 이름을 《諭世明言》(20卷)으로 바꾸어 간행하였고, 天啓 4년(1624)에 三桂堂 王振華는 《警世通言》(40卷)을 간행하였고, 三桂堂은 또 다른 판본의 《警世通言》(24卷)을 간행하였으며, 《二刻增補警世通言》(40卷, 내용은 《警世通言》 36篇과 《古今小說》 4篇이다)을 간행되었다. 天啓 7년(1627) 吳縣 衍慶堂에서 《醒世恒言》(40卷 40篇)을 간행하였고, 또 다른 판본 《醒世恒言》(40卷) 39篇을 간행하였다. 이 외에 「三言」은 崇禎 연간의 판본이 있는데, 谷陵 兼善堂에서 간행한 《警世通言》이 있고, 吳縣 葉敬池가 간행한 《醒世恒言》(40卷)이 있다. 이 외에도 明代 刊行本으로 映雪堂이 간행한 《古今小說》(40卷)과 金閨 葉敬溪가 간행한 《醒世恒言》(40卷 40篇)이 있다.³⁴⁾ 이 중 衍慶堂이 간행한 판본들은 모두 翻刻本들이다.³⁵⁾ 이러한 간행본은 모두 민간의 書商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이 작품들이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작품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며 민간의 書坊主는 빨리 작품들을 출판하기 위해 새로운 판본을 만들지 못하고 原刻本을 구입해 復刻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은 작품의 통속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특히 정교한 삽화가 대량으로 실려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金閨 葉敬溪가 간행한 《醒世恒言》에는 모두 40쪽의 삽화가 실려 있으며 회화나 판각이 모두 뛰어나 우수한 판화 작품이라 할 수 있다.³⁶⁾

「三言」의 편집자인 馮夢龍은 蘇州府 長洲 사람으로 그의 작품은 많은 수량이 그 지역 민간 書坊主에 의해 간행되었다. 그는 그 지역 書商들과

34) 王清原 牟仁隆 韓錫鐸, 《小說書坊錄》(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2) 참고.

35) 陸樹勳은 <「三言」的版本及其他>(《馮夢龍散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에서 衍慶堂에서 인쇄한 《諭世明言》, 《警世通言》과 《醒世恒言》이 모두 翻刻本이며 三桂堂의 《警世通言》도 兼善堂본의 翻刻本으로 보았다. 그는 또한 天許齋의 《古今小說》 역시 翻刻本이며, 葉敬池에서 간행한 《醒世恒言》 중 原刻本 이외에 復刻한 흔적이 있는 판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6) 葉樹聲 余敏輝, 《明清江南私人刻書史略》(合肥: 安徽文學出版社, 2000) 참고.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은 출판업자들이 문화시장의 수요를 이해하고 馮夢龍에게 독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읽을거리를 써달라고 요구했으며 그도 출판업자들에게 작품들을 출판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³⁷⁾ 《古今小說序》에서 馮夢龍은 “상인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 모두 40종을 넘겨주어 간행하도록 하였다(因賈人之請, 抽其可以嘉惠里耳者, 凡四十種, 畀爲一刻)”³⁸⁾ 라고 하였다.

「二拍」은 崇禎 연간에 간행되었는데, 尙友堂은 崇禎 원년(1628)에 《拍案驚奇》(40卷 40篇)를 간행하였으며, 같은 해 金閨 安少雲이 《卽空觀主人評閱出像小說拍案驚奇》(40卷)를 간행하였다. 崇禎 5년(1632)에 尙友堂은 《二刻拍案驚奇》(40卷)를 간행하였다. 이 외에도 明代 간행본으로 同人堂의 《拍案驚奇》(36卷)와 長春閣의 《拍案驚奇》가 있다.³⁹⁾

「二拍」의 작가 凌濛初로 湖州府 烏程人이다. 그는 話本을 모방하여 독립 창작의 소설작품인 「二拍」을 창작하였다. 그러므로 「三言」에 비해 「二拍」에는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 더욱 많은데, 그 중 公案題材의 작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대략 전체 작품의 삼분의 일에 해당한다. 이것은 당시 公案題材의 작품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凌濛初는 卽空觀主人이란 필명으로 쓴 <二刻拍案驚奇小引>에서 “동년배 중 왕래하던 사람이 보여 달라고 졸라서 한편 읽어보고는 書案을 탁 치며 ‘내용이 기이구나’라고 하였으며, 書商이 이 일을 알게 되었으며, 간행하게 해달라는 청을 전해왔기에, 이에 모아서 완전하게 만들어 40종을 얻게 되었다[同儕過從者索閱一篇竟, 必拍案曰 ‘奇哉所聞乎’ 爲書賈所偵, 因以梓傳請. 遂爲鈔撮成編 得四十種”라고 하였으며, 또 “상인이 한번 시판해보니 효과가 있어 다시 한번 해볼 것을 상의하였다[賈人一試之而效

37) 繆詠禾, 《明代出判史稿》(江蘇: 江蘇人民出版社, 2000) 참고.

38) 馮夢龍, 같은 책, 2쪽.

39) 王清原 牟仁隆 韓錫鐸, 같은 책 참고.

謀再試之]”라고 하였다.⁴⁰⁾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短篇의 작품들이 문화시장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으며, 明代 書商들의 상업 활동과 문인들의 참여가 서로의 목계 하에 통속소설의 출판을 가속화시켰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보존되어 있는 《型世言》은 明代의 판본이며, 이 책의 저자는 陸人龍이다. 매 회의 回首 마다 「錢塘陸人龍君翼」이라는 서명이 있으며, 대다수 작품의 매 회 앞에 翠娛閣主人 陸雲龍이 쓴 敘文이 있어서, 이 작품의 작가가 陸人龍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崇禎 연간에 간행되었고 이 작품의 간행과 杭州 지역의 翠娛閣主人 陸雲龍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陸雲龍은 明末 杭州의 유명한 편집자로 소설가이며 출판업자였으며, 崢霄館 역시 그가 꾸리던 書坊이었다. 그의 동생 陸人龍도 소설을 창작하였으며, 그의 아들 陸樹敏도 崢霄館의 책 출판과 교정 일에 참여하였다. 陸雲龍이 간행한 것은 《崢霄館評定通俗演義型世言》(10卷 40回)으로 직접 평어를 달았다. 여기에서 陸人龍의 작품 《型世言》이 陸雲龍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주로 그 시대의 人情世態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공안을 題材로 한 작품이 대략 전체 작품의 절반을 차지하며, 이것을 통해 당시 독자들에게 공안 이야기가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중에 간행된 《幻影》(《三刻拍案驚奇》), 《別本二刻拍案驚奇》 등은 모두 《型世言》의 작품을 편집하여 만든 것이다. 《幻影》은 明末에 간행된 것이며 《別本二刻拍案驚奇》는 《二刻拍案驚奇》와 《幻影》을 이리저리 모아서 만들어 낸 책이다. 正文의 목록으로 볼 때 앞의 10卷은 尙友堂 《二刻拍案驚奇》을 重刻하여 만든 것이고 뒤의 24卷은 明代 간행본 《型世言》을 重刻하여 만든 것이다. 이 책은 崇禎 16년(1643)에 씌어진 <序>가 있으므로 그 이전에 간행된 것이다.

이 외에 賞心亭에서는 崇禎 13년(1640)에 《歡喜冤家》라는 작품을 간

40) 凌濛初, 같은 책, 1쪽.

행하였고, 二美堂에서도 《貪歡報》(《歡喜冤家》)를 간행하였다. 이 책은 《杜鵑新書》, 《廉明公案》 등에서 제재를 취하여 만든 작품으로, 공안을 題材로 한 이야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明代 후기 白話 短篇小說集의 간행 상황을 통해, 우리는 당시 민간의 書商들이 明代 白話 短篇小說集의 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문인들이 이러한 소설집의 편집과 창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 明代 白話 短篇小說集 중 公案小說의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출판업자들이 독자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題材로서 공안 이야기를 많이 선택하였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2. 文人の 참여

民間 書商들의 적극적인 상업 활동 외에, 明代 白話 短篇小說集의 간행에 있어 문인들의 참여와 그 작용도 매우 컸다. 明代 후기 일부 문인들은 특히 통속소설의 창작을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世情의 묘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들이 창작한 통속소설의 독자층은 주로 서민계층이었기 때문에 서민계층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馮夢龍은 明代 白話 公案小說 發展史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로 白話小說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三言』의 이야기들은 주로 唐·宋 사람의 소설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지만, 馮夢龍은 <古今小說序>에서 “대체로 당나라 사람들이 선별하여 만든 글들은 문인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지만, 송나라 사람들의 세속적이고 쉬운 작품은 민간 백성들의 귀에 맞는 것이다. 천하에 문인들의 마음은 적고 백성들의 귀가 많아서 소설의 재료가 문인들의 글에서 나온 것은 적고 세속적이고 쉬운 것에서 나온 것이 많다[大抵唐人選言, 入於文心; 宋人通俗, 諧於里耳. 天下之文心少而里耳多, 卽小說之資於選言者少, 而資於通俗者多]”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宋·元 話本 등 통속문예에서 題材를 많이 선택하였고 한

편 문언소설에서 제재를 빌려온 작품들을 통속화 과정을 거쳐 개편하였으며, 이로써 서민대중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였다.

明代 후기 白話 短篇小說의 작가들은 점차 독립 창작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들은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기울였다. 凌濛初는 《拍案驚奇序》에서 “오직 龍子猶(馮夢龍)가 편찬한 《喻世》 등 작품들만이 자못 올바른 도가 있어 이 시대에 좋은 모범을 드러내고 지금의 나쁜 습관을 타파하였다[獨龍子猶氏所輯《喻世》等諸言, 頗存雅道, 時著良規, 一破今時陋習]”⁴¹⁾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황당하지 않으면 믿을 만하지 않고 외설스러워야 참지 못하고 듣는[非荒誕不足信, 卽褻穢不忍聞]」 당시의 세대를 비판하고 馮夢龍의 창작 풍격을 본받아 작품들을 창작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凌濛初는 서민계층의 현실 생활과 사상 감정에서 출발하여 그들이 사회생활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기이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拍案驚奇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밖의 허황하고 해괴한 이야기들만 알고 그것은 신기한 것으로 여기나, 민간에서 보고 듣는 일상생활은 알지 못하고, 그것은 황당하고 기괴함이 상식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여긴다. …… 소위 민간에서 보고 듣는 것 밖에서 황당하고 기괴한 것을 모색하여 신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今之人但知耳目之外牛鬼蛇神之爲奇, 而不知耳目之內日用起居, 其爲譎詭幻怪非可以常理測者固多也. …… 則所謂必向耳目之外索譎詭幻怪以爲奇, 贅矣.⁴²⁾

그는 또한 <拍案驚奇凡例>에서도 “다룬 이야기들은 世情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것들이고 기괴하고 황당한 것들은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다[事類多近人情日用, 不甚及鬼怪虛誕]”⁴³⁾라고 말하였다. 소위 「耳目之內」, 「日用起

41) 앞의 책, 1쪽.

42) 凌濛初, 《拍案驚奇》(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2), 1 쪽

居」라고 하는 것과 「近人情日用」이라는 것은 대중의 현실생활 중 일상생활에 매우 가까운 것이란 의미로, 대중의 심미관에 부합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世情을 題材로 한 소설에 작가가 「牛鬼蛇神」, 「譎詭幻怪」 등 기묘한 내용을 가미한 것이다. 특히 도시서민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기울여 그 속에서 다양한 公案題材를 발견해 내었다. 당시 공안과 백성들의 생활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많은 공안 이야기들이 매우 특이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公案題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公案題材를 통하여 서민의 생활을 그려내었던 것이다. 생활에 가까운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특이하고 우여곡절이 많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그가 추구하던 「일상성[常]」과 「기이함[奇]」의 결합을 이루어 내려고 하였으며, 이 두 가지 성분이 교묘하게 결합하여 대중들의 심미관에 부합되고 유희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특징에 부합할 수 있는 題材 중 하나가 공안 이야기였으므로 「二拍」의 작품들 중에는 公案小說이 급속히 증가하였던 것이다. 당시 도시가 발달하고 백성들의 현실생활이 날로 복잡해지면서 공안 이야기는 생활 속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주로 서민계층의 사회생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안 이야기를 묘사하였는데,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이함이 결합된 독특한 내용으로 인해 도시 서민들의 「喜聞樂見」의 읽을거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公案題材의 「전파성[可傳性]」에 주의하였으며, 이것은 이야기의 오락성과 이야기거리로서의 記事적 특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종종 공안 이야기의 記事적 특성으로서의 「전파성[可傳性]」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醒世恒言》 第16卷 <陸五漢硬留合色鞋>에서는 “그 때 杭城을 떠들썩하게 했으며, 모두들 이 이야기를 전하였다[那時哄動半個杭城，都傳說這事]”⁴⁴⁾라고 강조하였으며, 《二刻拍案驚奇》 券之18 <甄監生浪吞秘藥 春花婢誤泄風情>은 이야기의 결말부분에

43) 凌濛初, 같은 책, 2쪽.

44) 馮夢龍, 《醒世恒言》(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4), 335 쪽.

“고시문을 붙여놓으니 삼삼오오 甄家の 이 일에 대해 察院에서 명판결을 내렸다고 전하였고 기사거리가 되었다 [張挂告示, 三三兩兩, 盡傳說甄家這事乃察院明斷, 以爲新聞]”⁴⁵⁾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公案小說이 대중들의 심미관과 오락적 욕구에 부합하는 소설유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明代 후기 公案題材는 통속소설의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작품의 수량도 날로 증가하였다.

明代 후기 일부 문인들은 통속소설의 창작에서 世情에 대해 깊은 애정을 보이는 한편, 또한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운 題材의 소설을 통해 백성들을 教化하려는 창작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馮夢龍은 <古今小說序>에서 “겁 많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고 음탕한 사람을 절개 있게 만들고 경박한 사람을 돈후하게 만들고 어둔한 사람을 땀 흘리게 만드니, 비록 어릴 적부터 《孝經》과 《論語》를 읽었어도 그 감동이 이렇게 빠르고 깊지는 않을 것이다[怯者勇, 淫者貞, 薄者敦, 頑鈍者汗下. 雖小誦《孝經》·《論語》, 其感人未必如是之捷且深也. 噫, 不通俗而能之乎?]”⁴⁶⁾라고 하여 통속소설의 教化 작용 및 효과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대량의 白話 短篇小說을 창작하였는데, 그 중 공안을 題材로 한 작품은 因果應報의 관점을 통해 그가 추구하던 통속과 教化의 유기적 결합이라는 특징에 잘 부합하는 소설이었다. 따라서 「三言」에 적지 않은 公案小說이 실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三言」중의 작품들은 주로 話本을 개편하여 만든 것들이며, 公案題材의 작품은 대략 전체 작품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凌濛初 역시 통속예술을 통해서 欣欣子가 말한 것처럼 「세속적인 이야기에 그 뜻을 기탁하는[寄意于時俗]」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그는 「눈과 귀로 경험할 수 있는 기괴한 이야기[耳目前奇奇怪怪]」를 보여주는 世情小說을 창작하였는데, 모두가 「듣는 사람도 경계로 삼기에 충분하다[聞之者足以爲戒]」고 하였다. 公案題材는 바로 이러한 의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작품유형으로 明代 白話 短篇小說集에 많이 운용될 수 있었다.

45) 凌濛初, 《二刻拍案驚奇》(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6), 368쪽.

46) 馮夢龍, 같은 책, 1-2쪽.

「二刻」에서 公案題材의 작품은 대략 전체 작품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것은 愛情題材 다음으로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型世言》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明代의 것이며, 書名의 뜻도 「지금 세상을 위해 본보기를 세운다[樹型今世]」는 의미이다.⁴⁷⁾ 《歡喜冤家》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 읽으면 화제로 삼을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읽으면 진부한 속을 씻어낼 수 있고, 유치한 사람이 읽으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고, 건장한 사람이 읽으면 출세의 도를 알 수 있다[使慧者讀之, 可資談柄. 愚者讀之, 可滌腐腸. 稚者讀之, 可知世情. 壯者讀之, 可知變態]”⁴⁸⁾라고 하여 그 교화의 작용을 강조하였다. 《型世言》과 《歡喜冤家》에서 공안을 題材로 한 작품들은 거의 전체 작품의 50%에 이른다.

여기에서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성행과 성숙은 민간 출판업자들의 상업 활동뿐만 아니라 통속문학을 제창하는 문인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간행하였으므로 서민계층의 생활상과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에 부합되는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公案小說이 탄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說書藝術 중 「說公案」과 宋·元 公案類 小說話本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文言·筆記 公案小說 및 明代 公案小說專集의 창작 특징을 흡수하여, 白話 小說史에서 공안을 제재로 한 독립된 하나의 소설유형을 형성하였다.

明代 후기 인쇄술의 발달과 활발한 민간 출판업자들의 통속소설 간행의 흐름에 힘입어 더욱 활발하게 창작된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은 당시 통

47) 陸人龍, 《型世言》(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3), 40 쪽

48) 西湖漁隱主人, 《歡喜冤家》(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95), 384 쪽.

속소설의 특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독특한 유형의 公案小說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白話 公案小說이 서구의 탐정소설 혹은 추리소설과 구별되어지는 분명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이 당시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世情을 묘사하고 있으며, 바로 그 가운데에서 일어난 공안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서민들의 사회생활과 그들의 운명을 섬세하게 묘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 성숙한 明代 白話 公案小說의 서사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T.토도로프는 탐정소설의 유형을 분석하면서 구조의 이중성 즉, 「범죄의 스토리」와 「조사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서양의 탐정소설과는 달리 中國의 白話 公案小說은 「범죄의 스토리」와 「조사의 스토리」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공안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다른 차원의 심층구조인 「因果應報 구조」가 횡적으로 전개되는 「공안구조」를 관통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개략적인 구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明代 白話 短篇 公案小說의 창작과 간행에 대한 개략적인 특징을 전개해 보았는데, 앞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서구의 소설과는 구별되는 中國의 古代 白話 公案小說의 文本 형성 과정, 독특한 서사구조 및 유형특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 馮夢龍, 《喻世明言》(第9版: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4.
 馮夢龍, 《警世通言》(第9版: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4.
 馮夢龍, 《醒世恒言》(第9版: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4.
 凌濛初, 《拍案驚奇》(第2版: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2.
 凌濛初, 《二刻拍案驚奇》(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6.
 陸人龍, 《型世言》(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3.

- 夢覺道人 西湖浪子, 《三刻拍案驚奇》(原名《幻影》)(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7.
- 凌濛初, 《別本二刻拍案驚奇》(浙江: 浙江古籍出版社), 1993.
- 周楫, 《西湖二集》(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4.
- 西湖漁隱主人, 《歡喜冤家》(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95.
- 胡士瑩, 《話本小說概論》(第2版: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 譚正璧, 《三言兩拍資料》(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 黃巖柏, 《中國公案小說史》(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91.
- 陸樹勳, 《馮夢龍散論》(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 孟犁野, 《中國公案小說藝術發展史》(北京: 警官教育出版社), 1996.
- 齊裕焜, 《明代小說史》(浙江: 浙江古籍出版社), 1997.
- 小野四平, 《中國近代白話短篇小說研究》(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 莊司格一, 《中國の公案小說》(東京: 研文出版), 1998.
- 曹亦冰, 《俠義公案小說史》(浙江: 浙江古籍出版社), 1998.
- 葉樹聲 余敏輝, 《明清江南私人刻書史略》(合肥: 安徽文學出版社), 2000.
- 繆詠禾, 《明代出判史稿》(江蘇: 江蘇人民出版社), 2000.
- 王清原 牟仁隆 韓錫鐸, 《小說書坊錄》(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2.

< 中文提要 >

明代白話公案小說大致可分為兩種：一種是明代公案小說專集，另外一種是明代白話短篇公案小說，這是散見於「三言」，「二拍」，《型世言》，《歡喜冤家》等明代白話短篇小說集中的以公案為題材的作品。明代白話短篇公案小說繼承宋元「公案類小說話本」，又吸收公案小說專集及文言公案小說的滋養，形成了藝術水平較高，內涵豐富的成熟的白話公案小說群

本文從兩個方面討論了明代白話短篇公案小說的特點：首先，討論明代白話短篇公案小說的創作特點；其次，討論了明代白話短篇公案小說的刊行特點

首先，明代白話短篇公案小說的創作特點可分為兩個方面：第一，題材意識。明代白話短篇公案小說的作者有意識的創作以公案為題材的短篇小說。作者因為已具公案小說的題材意識，運用典型的公案小說的情節結構，並表現了教化的創作意圖。小說又涉及到很多有關法律的內容。第二，「話本體公案小說」的文體特徵。屬於話本體公案小說的明代白話短篇公案小說的文體特徵主要體現於複雜錯綜的公案故事情節，從公案故事體現出來的鮮明的人物形象以及富有喜劇性，諷刺性的公案小說的藝術手法。

其次，明代白話短篇公案小說的刊行特點，可分為兩個方面：第一，明代民間書坊主積極的推動了商業活動。第二，明代文人參與了通俗小說的編輯和創作。到明代，基於說書藝術的故事在書面化的過程中，民間書商和文人起了相當的推動作用。在這些過程中以公案為題材的作品被書坊主和文人受到重視。

주제어 : 類型意識, 話本體 公案小說, 民間 書商, 文人 參與

